

3월 중국 양회에 대한 대응 전략

2023/ 2/ 28

Strategist

곽병열

(2009-714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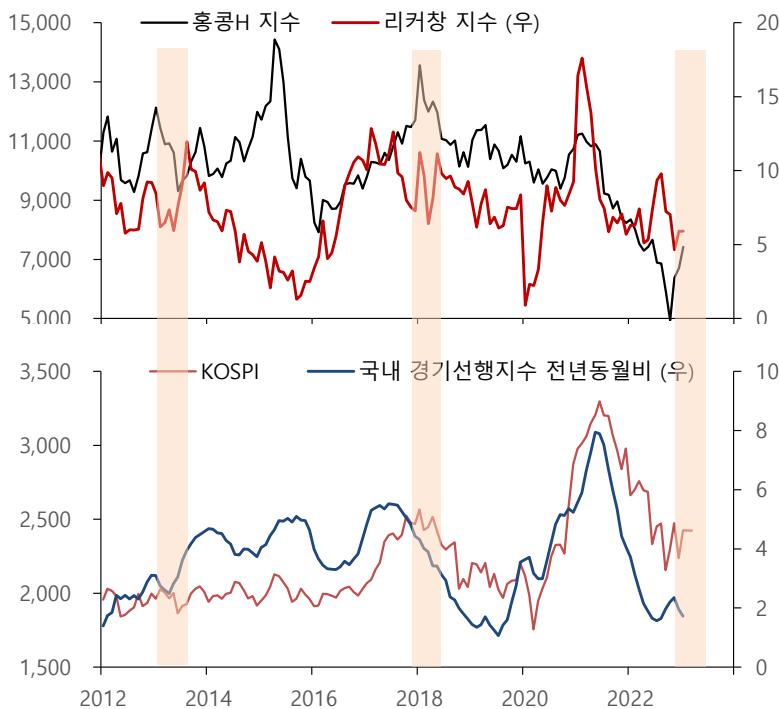
brkwak@leading.co.kr

■ 시진핑 1, 2기 출범 양회의 사례분석과 대응 전략

시진핑 3기 출범식에 해당할 2023년 중국의 양회(전인대, 정협)는 3월 4일부터 2주간 개최될 예정이다. 과거 연간 경제성장률 제시 등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제기되었는데, 금번은 3기 신임 총리 선출을 통해 3기 전체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클 것임.

과거 시진핑 1, 2기 출범 당해연도의 양회가 포함된 상반기의 경기지표 및 주가지수 방향성을 살펴본 결과, 중국 경기지표(리커창 지수)는 저점형성 이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확인됨. 다만 중국 및 한국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은 포착되지 않았고, 국내 경기선행지수 역시 리커창 지수와의 동조화 경향은 제한적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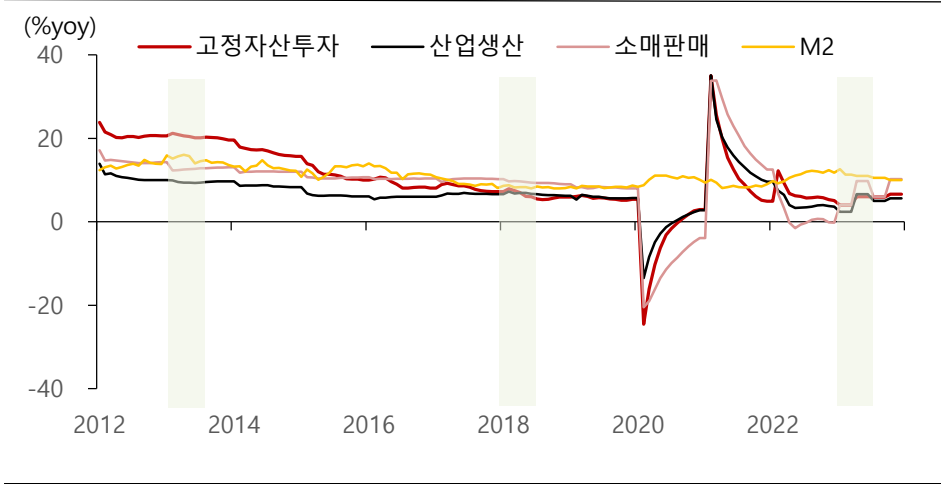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시진핑 1, 2기 출범 초기의 경기지표와 주가지수



시진핑 1, 2 기 출범 당시 중국 경제개혁의 차별성으로 중국 경기의 연착륙 유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반응은 뚜렷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함. 1 기의 경우 과잉 투자의 정상화로 고정자산투자의 하향안정 시도, 2 기의 경우 공동부유로 대변되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소매판매 흐름을 유도시킨 바 있음.

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2023 년 경제성장률 5.2%, 고정자산투자 5.8%, 소매판매 8.0%, M2 증가율 10.4%로 예상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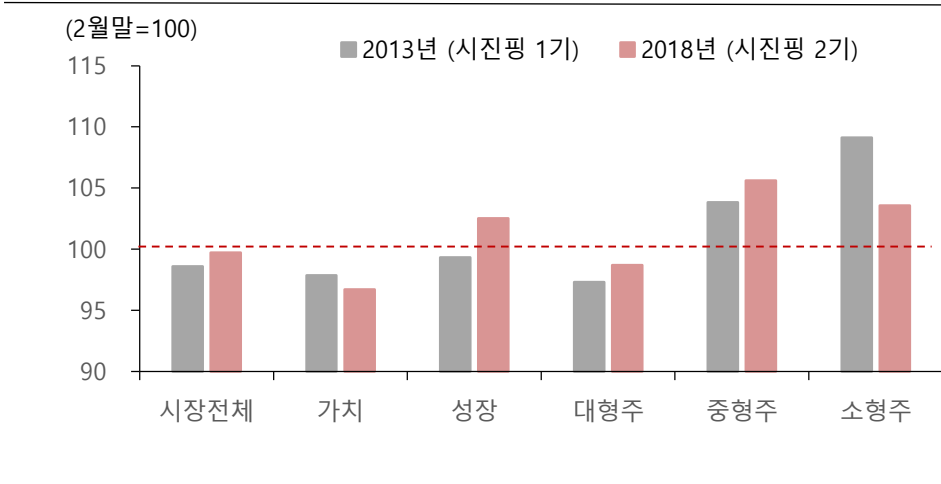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시진핑 1, 2 기 출범 초기의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 주: 2023 년 이후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활용함

시진핑 1, 2 기 출범 초기 국내 주식지수의 3 개월간 반응을 살펴봤는데, 시장전체로는 기간조정 흐름을 보였음. 다만 눈여겨 볼 부분은 성장주와 중소형주의 강세현상이 가치주와 대형주 대비 뚜렷했다는 점임. 중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는 국내 증시에서는 성장주와 중소형주에게 보다 긍정적인 재료로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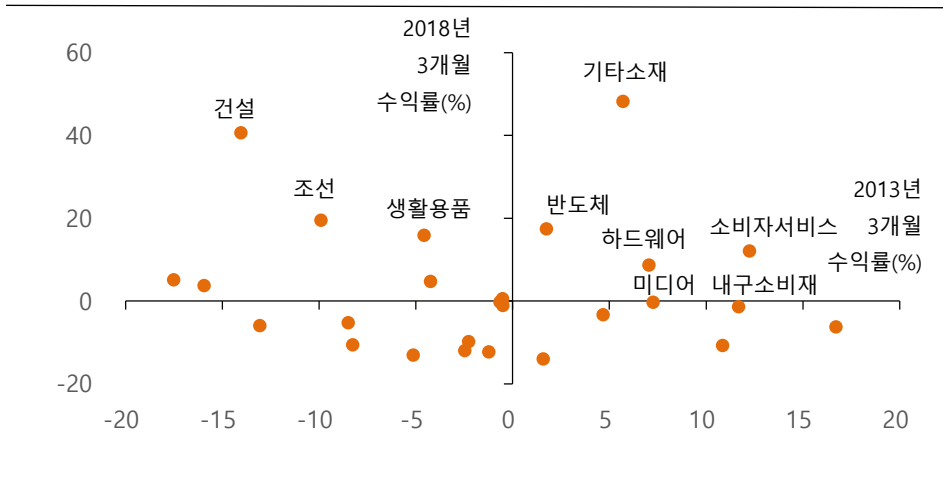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시진핑 1, 2 기 출범 초기의 국내 주가지수의 3 개월 추이



자료: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

또한 시진핑 1, 2 기 출범 초기 국내 업종지수의 3 개월간 반응도 살펴봤는데, 2 번의 경우 모두 양(+의) 수익률을 나타냈던 업종으로는 기타소재, 반도체, 하드웨어, 소비자서비스, 미디어, 내구소비재 등임. 이 중에서 최근 매출과 이익전망이 개선 중인 종목군은 아래의 <그림 5>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

<그림 4> 시진핑 1, 2 기 출범 초기의 국내 업종지수의 3 개월 추이



자료: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

<그림 5> 시진핑 1, 2 기 출범 초기 수혜업종 중 매출-이익전망 개선 종목군

종목명	매출액 (3개월 대비) (%)	영업이익 (3개월 대비) (%)	주가수익률 (3개월 대비) (%)
이엠텍	17.74	17.55	-20.00
하이브	14.35	8.80	31.22
아이티엠반도체	11.35	4.38	-11.31
골프존	8.97	11.34	29.26
솔루엠	5.59	6.37	20.71
피에스케이	5.44	7.64	-3.87
원익머트리얼즈	5.42	2.31	-7.03
파크시스템스	4.76	4.26	22.12
GKL	4.51	6.27	23.17
JYP Ent.	3.27	1.57	23.54

자료: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

■ 결론

- ▷ 시진핑 1, 2기 출범 초기의 경기지표와 주가지수
 - 리커창 지수(철도물동량, 전력소비량, 신규대출)의 바닥확인 및 회복 시도
 - 다만 증시 및 국내 경기선행지수의 동조화 경향은 뚜렷하지 않음
 - 1, 2기 당시 경제개혁 과제가 달랐으므로 금융시장 반응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
- ▷ 다만 국내 성장주-중소형주는 뚜렷한 강세현상 확인
 - : 중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한 것으로 추정
- ▷ 시진핑 1, 2기 출범 초기의 업종별 반응 사례
 - 기타소재, 반도체, 하드웨어, 소비자서비스, 미디어, 내구소비재 등에서 긍정적 반응 관찰
 - 이런 업종 중 최근 3개월 간 매출-이익 전망 동반 개선 종목군에 주목

▶ 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무단복제,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.